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최진영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강경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최진영

인 준 서

최진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안산시 A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 결과에서 생활연령과 언어발달연령 차이가 6개월 이상 나는 2명의 아동이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2014년 9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 2회, 1회기에 40분씩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과 사후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회기별 아동의 발화와 행동을 관찰하여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사례별로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를 향상시켰다. 수용언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PRES 검사 결과, 대상아동 두 명 모두 수용언어의 향상을 보였다. 회기별 관찰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두 아동의 수용언어가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를 향상시켰다. 표현언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PRES 검사 결과, 대상아동 두 명 모두 표현언어의 향상을 보였다. 회기별 관찰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두 아동의 표현언어가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래중심 음악치료 중재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다문화가정	7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7
2)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념 및 특성	8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10
2. 노래중심 음악치료	12
1)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	12
2) 노래와 언어발달	13
III. 연구 방법	17
1. 연구 대상	17
1) 대상아동 A	18
2) 대상아동 B	20
2. 측정도구	22
1)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22
2) 자료 수집 및 기록	23
3. 연구 설계 및 절차	23

1) 연구 설계	23
2) 연구 절차	24
4. 자료 분석	24
5. 프로그램 구성 및 활동 내용	25
1) 프로그램 절차	25
2) 음악치료 프로그램	26
IV. 연구 결과	29
1. 양적분석	29
1) 대상아동A의 언어 향상 결과	29
2) 대상아동B의 언어 향상 결과	30
2. 질적분석	30
1) 대상아동A	30
2) 대상아동B	33
V. 결론 및 논의	3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대상아동의 기본정보	17
<표 2> 사전-사후설계	23
<표 3> 매 회기별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절차	25
<표 4>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26

그림 목 차

<그림 1> 대상아동A의 언어발달 검사 사전·사후 결과	29
<그림 2> 대상아동B의 언어발달 검사 사전·사후 결과	3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빠른 세계화 진행과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한 외국인력 유입으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의 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다문화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다문화 출생아는 22,908명으로 전년대비 4.1%나 증가했다. 또한 전체 출생 대비 다문화 출생 비중이 2008년 2.9%에서 2012년 4.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통계청, 2013).

새로운 소수 집단의 2세인 다문화가정 아동은 성장과정에서 인종·민족 등의 차이와 차별로 인하여 여러 소외현상을 겪는다. 윤형숙(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부분은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와서 가사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그로인해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장과정에서 언어발달과 정체성 형성 등에 문제를 겪는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학교의 부적응, 학습 부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에게 언어는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인간은 의사소통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모든 정신적, 물리적 소통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은 주류 문화권 언어인 제 2언어와 타 문화권이 언어인 모어 교육 둘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학교 또는 한국어 교육에서 유리되거나 중도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성기철, 2008).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린 시절부터 언어발달지체의 고위험군에 처해 있으며, 이 문제는 학령기 이후까지 지속된다(김영란, 김영태, 2011). 이들은 발음의 부정확함, 언어예절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부족, 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문장오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왕한석, 한건수, 양명희, 2005).

김영란, 김영태(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저소득층집단의 아동 사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의 표현언어력은 일반가정 아동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장유림(2011)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목적 연결어미 사용이 일반아동에 비해서 낮은 발달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임미정(2011)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배소영, 김미배(2010)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능력을 비교한 연구의 결과로 낱말을 해독하는 능력과 문단을 이해하는 능력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저조한 수행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미지, 석동일(2010)의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 간 음운처리에 관한 메타언어능력의 비교 분석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비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점수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200여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언어발달 지도사가 한 명 이상씩 고용되어 다문화가정 아동을 평가, 언어지도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소현, 정명심,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원에 비해 그에 대한 평가 및 치료 측면에서 임상적인 효과성을 제공해주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은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실태 비교 또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 음운인식 등의 특성 등 실태를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영란, 김영태, 2011; 이수정 외, 2008; 장유림, 2011; 임미정, 2011; 한나영, 2011).

이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의 연구가 아닌 지적장애, 뇌성마비, 자폐 등 장애 아동의 언어발달 중재의 효과성 연구는 많다(강수균 외, 2011; 김단아, 최성규, 2012; 김성수, 2005; 고숙희, 김화수, 2006; 박소현, 김영태, 2009; 전현선, 한경임, 노선옥, 2004; 정경희, 박미진, 2014; 조은정, 박선희, 2013; 한경임, 2000). 하지만 장애 아동의 언어문제는 반향어를 사용하거나, 어휘에 제한이 있고 고정적인 경우, 조음기관의 장애로 호흡이 어려워 발성 자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뇌에 손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제한점 때문에 언어치료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장애 아동과 같은 상태의 치료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문제는 인지, 정서 등의 장애로 인한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온 결과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높은 효율을 거둘 수 있다. 박소현, 정명심(2012)은 그들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치료 경우에 보통 6개월 안에 정상범주까지 언어가 향상되어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단기학습을 적용시킨 결과 세 명 중 두 명에게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볼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언어문제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발음이나 어휘가 타인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더 사용하려 하지 않으며 그러한 태도 때문에 더욱 수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취학 전 연령인 만 4, 5, 6세 때에 언어 발달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홍영숙, 2007).

언어치료 분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개입하고 있다. 진순주 외(2011)는 상호작용놀이를 통한 중재를 활용하여 표현언어의 향상을 증명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아동은 놀이를 통해 모방과 시행

착오를 거치며 언어능력을 습득했다. 장미영(2009)은 단어의 강약과 리듬을 활용한 중재로 단어를 작은 단락(말토막)으로 나누어 범주적 어휘와 관계어를 습득하도록 했다. 문경아(2011)는 글자 없는 책 읽기 언어중재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 언어 표현력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글자 없는 책은 맞고 틀림 없이 상상을 통한 무한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언어치료 분야에서는 훈련적 접근이 아닌 놀이와 리듬 등의 아동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중재를 선택하고 있다.

언어치료에서 선택하는 리듬 중재는 사실 음악치료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재로 문장을 리듬단위로 쪼개어 랩을 한다든지, 그 위에 멜로디를 붙여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노래는 언어발달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김은선, 2010). 노래는 리듬, 멜로디, 소리의 강약 등의 구조와 적용하는 방식에서 언어와 유사하며 이것은 서로 상호적인 의사소통의 체계이다. 반복되는 리듬과 여러 번 되풀이 되는 노래 가사로 이루어지는 노래는 자연스럽게 어휘를 보다 쉽게 기억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언어발달 촉진에 도움이 된다(최애나, 2012). 아동의 유아기 음악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이 노래부르기이다. 아동은 노래를 부르며 일정한 박자와 운율에 맞추어 가사를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창한 언어 발달이 가능하다(최미영, 2010).

언어발달에 관한 음악치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차은진(2013)은 동화를 중심으로 한 노래극 활동을 했을 때 유아의 언어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고, 장혜원(2012)도 노래 활동이 발달지체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박해진(2008)은 음악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표현과 자기표현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했으며, 이상연, 강수균(2001), 배정화, 최성규(2004), 장명옥(2003)은 그들의 연구에서 노래부르기 음악치료 중재가

발달지체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점들도 부각되고 있는데 다른 사회성이나 자존감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에 비해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은선, 2010; 박해진, 2008). 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중재에 대한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주양육자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미취학연령의 아동에게 중재가 개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치료 분야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발달 중재의 효과성 연구보다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실태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중재의 효과성을 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노래중심음악치료를 시행 하였을 경우,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 발달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 발달에 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을 칭하는 용어이다(이은정, 2012).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의 인식은 미군 병사 또는 전문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 남성과 한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뿐이었다(설동훈, 윤홍식, 2006). 2000년대에 들어서야 다문화가정이 중요한 정책적 의제라는 인식이 증가하며 2008년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었다. 2011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된 다문화가족의 범주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귀화 또는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로만 본다면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가정, 이주민가정(유학생, 새터민, 이주 노동자) 등은 다문화가정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정, 한국 국적을 가진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정, 이주민가정(유학생, 새터민, 이주 노동자 등)을 포함해 다문화가정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2014).

안진행정부(2014)의 외국인주민현황통계에 따르면, 2014년 결혼이민자의 수는 남성 21,953명, 여성 127,811명, 총 149,764명이고 혼인귀화자는 남성 4,261명 여성 86,178명으로 총 90,439명, 기타사유귀화자는 남성 22,573명, 여성 33,066명, 총 55,639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국적취득자는

총 295,842명이다. 이는 2007년 총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그리고 기타사유국적취득자 142,015명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그리고 기타사유국적취득자의 전체 남성이 48,787명으로 16.5%, 여성이 247,055명, 83.5%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혼인귀화자의 경우 여성이 86,178명으로 남성 4,261명의 2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통계로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혼인 후에 한국에 정착하면서 귀화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념 및 특성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념은 크게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아동과 외국인 근로자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두 가지 부류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에 정의된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는다(국적법, 2014).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에 의한 다문화가족은 부모 중 한명이 출생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가정, 노동자이주민 가정, 새터민가정 등의 아동은 한국에서 출생하였어도 한국아동과 동일한 교육 기본권을 갖지 못하며 학교 입학 등의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다.

안전행정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다문화가정 자녀는 총 204,204명으로, 2013년 191,328명의 107%, 2007년의 44,258명의 461%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문화 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중, 고등학생인 만 13세부터 18세의 청소년들은 32,965명으로 지난 2007

년 3,421명의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고,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만 6세부터 12세의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노출되어 있으며(장일식, 2014) 이러한 영향으로 크게 아래의 네 가지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만난 부모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풍습, 생활태도 등의 혼재로 혼란을 느끼며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최연, 2012; 선남이, 2013).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오는 정체성의 혼란은 특히 이목구비의 생김새나 피부색 등의 차이로 인해 가중된다.

두 번째로 타인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편견은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단일민족에 대한 혈통 강조와 타국민, 혼혈에 대한 배타적 성향에 근거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인종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이은주, 2011).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인이 아닌 태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온 외국인이라면 외모로부터 오는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 또래집단을 형성하면서부터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또래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홍정미, 2008).

세 번째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보건복지부(2005)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반 이상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은 자녀의 교육비에도 많은 생활비를 할애하지 못한다(홍정미, 2008).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 채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성장한다면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춘기가 되었을 때 심리적 위축감과 가족에 대한 회의감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영희, 2010).

네 번째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는 인간에게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발달의 지체는 아동이 학교에 진학한 후에 독해력, 어휘력 등의 현저한 문제를 겪게 되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윤형숙, 2005).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더욱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이 되거나 반대로 과잉행동과 같은 정서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왕한석 외, 2006).

국가인권위원회(2005)의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에서 초,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고충’에 따르면 ‘미숙한 한국어’가 29.8%,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들’이 23.4%로 언어에 관련된 고충만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언어발달 지연의 영향으로 인한 ‘낮은 성적’으로 인한 어려움은 18.0%로 전체 고충의 70% 이상이 언어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황범주, 2008).

한편 ‘따돌림, 놀림, 구타’는 10.7%로 4위, ‘친구 사귀기가 힘들’은 8.0%로 5위로 사회적 편견에서 오는 어려움이 약 20% 정도이고 ‘소비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은 5.9%로 어려운 경제수준으로 인한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타’ 영역은 4.2%이다.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서로 다른 문화권의 남녀가 만나 이루어진 가정의 모습인 다문화가정 안에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와 문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다문화가정 아동은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에 두 가지 언어에 노출이 되어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의 혼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배소영, 김미배, 2010).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이 일반아동 발달 수준에 비해 낮다고 보고한다(김영란, 2011).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일반적 언어 발달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어가 미숙한 주양육자와 함께 지내며 습득한 언어와 주양육자 외의 가족들, 유치원 등에서 습득한 언어가 혼재되어 발달하면서 일반적 언어 발달 순서와는 다른 각자만의 발달 과정을 겪는다(박신영, 2003).

언어치료분야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이해력, 표현력, 음운인식능력, 읽기능력 등 언어발달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연구해왔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전반적 언어발달을 비교했을 때 언어발달지체에서 언어발달 장애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어의 이해력, 표현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은 성취정도를 보였다(김영란, 김영태, 2011; 박지윤, 2007; 정은희, 2004; 황상십, 정옥란,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 음운인식능력 또한 타 또래집단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양성오, 황보명(2009)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단어수준, 음절수준, 음소수준에서의 수세기, 탈락, 합성, 변별 등을 검사한 결과 모든 과제에서 일반가정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권미지, 석동일(2010)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학년별로 검사했을 때 일반아동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류현주 외(2008)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조음수행력이 낮고 주양육자의 모국어에 따라 아동의 조음오류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읽기능력은 음운인식력 후에 발달하는 분야이다. 최은정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이중언어 환경의 아동은 읽기능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연음규칙 인식능력 부분에서 단일언어 환경의 아동보다 저조하며, 특히 /ㄷ/ 음소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한다. 배소영, 김미배(2010)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능력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낱말을 이해하고

유창하게 읽는 능력이 비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은 언어의 전 영역에 걸쳐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언어발달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노래중심 음악치료

1)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

음악과 언어는 공통적으로 청각적 소통의 도구로 뇌의 부호화과정을 거쳐 저장되며 정보가 필요할 때 인출되는 단계를 거치는 소리의 조직체계이다(이석원, 1994). 이러한 조직화된 소리 체계는 음운론(phonology), 통사론(syntax), 의미론(semantic), 화용론(pragmatic)에서 그 유사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이미진, 2013).

D'Agrosa(2008)는 그의 연구에서 언어가 여러 부분에서 음악과 대응되는 구조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는데 언어에서 음운론은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 체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음악에서 음악의 요소(음조, 강약, 음색 등)를 인식하는 것과 대응한다.

통사론적으로 봤을 때 언어에서 통사는 여러 단어들인 문장의 구성 순서에 따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음악적 통사는 음악의 여러 규칙에 따라 조성 안에서 화음을 만들고 화성을 연결하는 것이다(이지영, 2006). Patel(2008)은 사람들에게 조성 안의 화음과 조성 밖의 화음을 들려준 경우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진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 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이를 통해 음악적 통사를 처리하는 과정이 언어적 통사를 처리하는 과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에도 언어와 음악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언어

의 영역에서 의미론이란 언어 자체의 기호적인 뜻과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다. 음악의 영역에서 음악적 의미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악보에 기보된 기호, 음 등의 음향학적인 것에서부터 음악을 듣는 감상자에게 전달, 이해되는 것 까지를 다룬다(이화병, 1994).

또한 음악과 언어는 의사소통의 결과로 소리를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의도성을 갖는다(김혜숙, 2013).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사용과 기능, 앞 뒤 상황의 맥락적 이해, 문화적 배경의 이해 등이 필요하다(이유미, 2011). 이것이 음악과 언어의 화용론적 공통점이다.

위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음악과 언어는 표현방식이 유사하며 음의 높낮이, 멜로디, 강약, 리듬 등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황성숙, 2004).

2) 노래와 언어발달

음악 활동의 대표적인 형태라 볼 수 있는 노래 부르기가 조음, 음운, 음성의 질, 적절한 호흡과 의사소통능력, 어휘력 발달 등 언어발달의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최윤진, 2010).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노래는 자신이 속한 또래 그룹에서 상호간 서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래와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아동은 자신의 소리 뿐 아니라 옆에서 함께 노래하는 다른 아동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음정 또는 박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며 조율한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의 소리에 집중하며 아동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음악을 타인과의 교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된다(박현옥, 2000).

또한 규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 부르기는 자연스러운 반복 학습으로 오랫동안 기억을 유지하도록 한다(이우남, 김수진, 2006). 노래는 구조적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을 줄이고 비언어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한성은, 2006).

위에 쓴 바와 같이 노래는 언어발달의 여러 분야에 효과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래를 통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래를 통한 수용언어 발달

수용언어란 타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음성 듣기와 문자 읽기가 이에 속한다(한유미 외, 2006). 사람에 따라 언어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으나 일반적인 아동의 경우 표현언어보다 수용언어가 먼저 발달한다(서운정, 2014). 사람이 처음 수용언어를 경험하는 시기는 태아시기이며,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는 외부의 소리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구별한다(김경미, 2009). 수용언어능력의 발달은 일반적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대부분의 아동이 취학 전에 문법 구조와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많은 어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안숙, 2013).

아동기에는 유치원과 가정 등에서 많은 음악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악을 통한 수용언어 발달이 가능하다. 노래를 들을 때 아동은 노래에서 들리는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고 반복되는 리듬과 가사에 의해 분별(discrimination)과 기억(memory)과 같은 청각적 기술을 학습한다(김일미, 2004).

아동은 노래 부르기를 통해 가사로 제시되는 언어적 지시와 음악 안에서 제시되는 비언어적 지시로 인해 지시따르기 능력이 향상된다(송옥경, 2003). 예를 들어 <동물농장> 노래에서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꼬댁”이라는 가사

의 경우에 “암탉이” 후에 다음 가사가 바로 나오지 않고 4박자의 쉬는 공간이 비언어적 지시로 주어진다. 이로 인해 아동은 자연스럽게 그 공간 안에 닭의 울음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꼬꼬댁”이라고 발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래 부르기는 가사 안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문장을 읽기 오류를 감소시키고 정확성을 향상시켜 음독능력의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김은아, 2008).

(2) 노래를 통한 표현언어 발달

표현언어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한유미 외, 2006). 아동은 3세 무렵에 낱말을 조합하면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4세에서 5세에 구, 절이 포함된 복문으로 문장을 말하기 시작한다(한나영, 2011).

표현언어의 발달을 위해 아동은 입 밖으로 소리를 내고 자신이 내는 소리를 들으며 틀린 부분을 교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주의집중시간이 짧은 아동들에게 흥미를 갖고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이러한 훈련이 가능한 활동이 노래부르기이다.

노래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동이 패턴을 예측하여 안정감 있는 발화를 가능하게 한다(강선미, 2004). 아동은 노래를 부르며 올바른 호흡을 익히고 정확하게 단어와 문장을 발음하여 효과적인 언어 생성이 가능하다(Kultti, 2013).

노래 부르기는 기존에 있는 곡을 부르는 것 뿐 아니라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아동에게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언어 형태로 표현하여 확장적 사고를 갖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문장 구조를 익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한다(이수연, 2006).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5세의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남아 2명이다.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기도 안산시의 A어린이집 아동으로 선별 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부모의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진행되었다.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양육자가 외국인 어머니인 다문화가정의 아동

둘째, 시각 및 청각, 감각장애와 정서·행동적 문제가 없는 아동

셋째, 기관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아동

넷째,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 PRES) 검사 결과에서 생활연령과 언어발달연령 차이가 6개월 이상 나는 아동

<표 1> 대상아동의 기본정보

구분	대상아동 A	대상아동 B	
생활 연령	62개월 (2009년 8월 14일생)	67개월 (2009년 3월 3일생)	
성별	남	남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4세)	
어머니 출신국	베트남	중국	
언어발달 연령	수용언어 연령	53개월	58개월
	표현언어 연령	48개월	55개월
	통합언어 연령	51개월	57개월

1) 대상아동 A

(1) 기본 생활 습관

A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교사를 보면 바르게 인사를 하며 교사의 도움 없이 자신의 옷, 가방, 이불가방 등을 접어서 정리한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 A는 소변을 보고 반드시 손을 씻으며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고 물 묻은 손은 수건에 닦는다. A는 식사시간에 바르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편이나 규칙적인 속도로 식사하기 보다는 다른 친구들이 얼마만큼 식사를 했는지 확인하며 식사를 한다. 자신이 먹기 싫어하는 반찬은 맨 나중에 한꺼번에 먹고 입안에 가득 담아 먹는다. A에게 먹기 싫은 음식은 먹기 힘들면 먹지 않아도 된다고 교사가 이야기해도 주변의 다른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 먹으려는 모습이 보인다.

(2) 신체 및 건강발달

A는 실외활동을 매우 좋아하며 다른 아동을 따라 뛰거나 미끄럼틀, 시소 등 기구를 이용하여 놀이하는 것을 즐긴다. A는 그림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여 선을 길게 그리거나 동그라미를 그리는 등 다양한 도형을 그리지는 못하나 손에 힘이 있어 글씨는 잘 쓴다. A는 수 조작영역에서 퍼즐을 맞추거나 작은 블록을 이용하여 기차를 만들기도 하는 등의 소근육을 이용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A는 손가락에 염증이 가라앉았다 올라왔다는 반복하고 감기에 잘 걸린다.

(3) 사회 및 정서발달

A는 주로 먼저 다른 아동에게 다가가지 않고 다른 아동이 다가와 함께 놀이하라고 제안할 때 놀이에 참여한다. A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쌓기영역에서 블록을 구성하거나 언어영역에서 보드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숫자, 글자 등을 적는다. A는 자신이 구성한 블록이나 글자들을 교사에게 보여주며 칭찬을 받길 원하며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친구에게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A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 하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눈물부터 흘린다. 친구들이 A에게 장난을 치거나 A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손으로 얼굴을 긁는 다던가 주먹으로 어깨를 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4) 언어발달

A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 순서 맞춰 이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차례에 말 할 수 있다. A가 자신 없는 말을 할 때에는 작게 이야기하고 끝말을 흘린다. 대체로 A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힘들어하며 수용언어의 발달이 늦어 교사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다. A가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발화할 때에는 자신이 듣기에 비슷한 발음으로 표현하지만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A는 글자를 읽고 쓸 수는 없으나 보고 적을 수 있고 글자와 비슷한 형태를 표현하려고 한다.

(5) 인지발달

A는 새로운 사물에 관심을 보이고 관찰한다. 그러나 관찰하는 시간은 길지 않고 금세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다. A는 기본적인 색깔, 도형, 사물 등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고, 10까지의 숫자를 셀 수 있으나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것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A는 친구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악기의 소리를 들어보며 소리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좋아한다.

2) 대상아동 B

(1) 기본 생활 습관

B는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때 자신의 옷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아동들이 놀이하는 곳에 다가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B가 옷을 벗어 마구 구겨 바구니에 담았다가 교사가 접어서 정리할 것을 이야기하면 “아 맞다”라고 말하며 옷을 다시 접어 정리한다. B가 6세반에 들어온 초기에는 식사를 할 때 반찬을 숟가락으로 끌어 밥 위에 올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비벼 먹는 모습이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모습은 사라졌다. 그러나 B는 밥을 입한가득 물고 이야기하여 입에 있는 밥풀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다른 친구의 얼굴에 튀기기도 한다. B는 정해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실내에서 뛰다가 다른 아동들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2) 신체 및 건강발달

B는 실외활동시간과 체육활동, 신체활동 시간을 매우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두 발 모아 멀리 뛰기, 달리기 등의 활동을 다른 아동들보다 월등히 잘하고 풍선불기, 매달리기, 버티기 등 다양한 신체 활동에 탁월함을 보인다. B는 다른 아동들과 놀이 규칙을 정하여 함께 놀이하기도 한다. B가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나 친구와 부딪히거나 코를 파서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다.

(3) 사회 및 정서발달

B는 주로 자신이 주도해서 놀이를 이끌어나가고 싶어 한다. 자신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여 놀이하고 싶을 때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이 이동할 것을 권유한다. B는 여자친구들의 어깨를 끌어안는다던가 친구들에게 뽀뽀를 한다거나 하는 애정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B는 다른 친구들의 감정은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워 다툼이 많이 한다. B에게서 다른 친구들의 뺨을 때리거나 뒷목을 때리는 등 공격적인 모습이 자주 보이며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에 종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4) 언어발달

B는 ‘자동차’를 ‘다동차’로, ‘책상’을 ‘색상’으로 발음하는 등 조음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 정확한 발음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이 어렵다. 상대방이 B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B는 허공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주는 등의 모습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B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가 주변에서 보이면 관심을 보이며 한 글자씩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보고 종이에 옮겨 써본다.

(5) 인지발달

B는 새로운 사물에 굉장히 관심이 높고 오랜 시간동안 집중하여 관찰한다. 특히 새로운 생명체에 관심이 높으며 생김새, 먹이, 사는 곳 등에 관심이 많다. B는 다양한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색의 도구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한 B는 100까지 숫자를 셀 수 있고, 간단한 덧셈도 가능하다.

2. 측정 도구

1)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능력, 어휘력 측정은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2세에서 6세 사이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2002)이 개발한 것이다. 검사를 통하여 아동이 정상적 언어발달 범주 안에 있는지 혹은 언어발달에 지체 또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검사는 수용언어영역과 표현언어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문항이 45개씩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90문항 안에는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기록

본 연구의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해 세션의 전 과정과 사전, 사후검사의 오디오 녹음,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이 자료들은 연구자가 매 회기 따로 분석, 기록하여 문서화하였다. 또한 아동의 기본 생활습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와의 심층면담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표현언어 향상을 위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 아동들에게 수용·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를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측정 후 비교하였다. 또한 매 회기 별 변화를 녹음,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다.

<표 2> 사전-사후설계

대상자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아동 A, B	O1	X	O2

O1 : 사전검사

O2 : 사후검사

X :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의 A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11명 중 낱말자음검사(윤미선, 1998)와 수용·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를 통해 수용·표현언어가 또래 아동보다 1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아동 3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후에 아동 1명은 잦은 결석으로 이탈 되었고 나머지 2명의 아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4년 9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공휴일과 어린이집 행사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짜로 연기하였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노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1회기에 40분씩 주 2회,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으로 나누어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양적분석은 대상아동의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를 검사하여 점수를 비교하였다.

질적분석은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Case Study)를 사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매 회기별 아동의 발화와 행동 관찰, 문서 수집, 담임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보호자와 기관의 동의를 얻어 비디오 촬영, 오디오 녹음을 하여 내용을 분석했다.

5. 프로그램 구성 및 활동 내용

1) 프로그램 절차

<표 3> 매 회기별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절차

단 계	소요시간	활동내용
도입	5분	시작 인사노래, 워밍업 활동(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중심활동	30분	수용언어·표현언어 향상을 위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 (노래 부르기, 송라이팅(Song Writing), 랩(rap), 악기연주)
마무리	5분	소감 나누기, 마치는 인사노래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아동들이 미취학아동이기 때문에 짧은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30분 정도로 중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활동 후에는 함께 정리하고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하였다. 노래는 아동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동요와 따라 부르기 쉽고 반복적인 A-A' 또는 A-B 구조의 노래를 주로 사용하였다.

2) 음악치료 프로그램

<표 4>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 기	목 표	내 용 / 노래 제목	목표 단어, 문장 / 수용언어 능력
1	라포형성 색	시작 인사노래 배우기 핸드벨 연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2	/ㅌ/조사 모방 반대개념	<템버린을 연주해> <멋쟁이 토마토> <00옆에 00!>	/ㅌ/조사를 명확하게 발음한다. 크다/작다, 밝다/어둡다, 빠르다/느리다
3	상위개념	<동물농장> <00이는 어떤 과일 좋아해>	닭, 오리, 송아지, 염소, 코끼리 사자, 호랑 이 등의 동물 사과, 귤, 오렌지, 감, 포도 등의 과일
4	은유적 표현	<사과같은 내 얼굴> <달>	예쁜 얼굴을 봤을 때 사과 같은 얼굴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둥근 달을 봤을 때 쟁반 같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5	계절 청각적 기억력	계절노래 부르기 <북을 쳐요>	계절 특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리를 듣고 몇 번 쳤는지 대답한다.
6	수개념 단위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하나, 둘... 아홉, 열. 마리, 개
7	조사 모방	<조사발음 랩>	/ㅏ/, /ㅑ/, /ㅓ/, /ㅕ/ 조사
8	전/후	<머리 만지기 전에>	상황을 전과 후로 나누어 말한다.
9	방향이해	<00옆에 00!>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을 이야기한다.
10	마무리	활동 복습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총 10회기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였다.

1회기에 라포형성과 색인지를 목표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시작인사 노래를 배우고 대상아동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즐거움과 익숙한 느낌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여러 가지 색의 핸드벨로 흥미를 유도하고 “무슨 색의 핸드벨을 줄까?” 라고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핸드벨 색깔의 이름을 말하도록 했다.

2회기에는 /ㄷ/계열 소리의 올바른 모방을 위해 <멋쟁이 토마토> 노래와 <탤버린을 연주해> 노래를 불렀다. 또한 반대 개념을 익히기 위해 이수진(2008)이 작사, 작곡한 <00 옆에 00!> 노래의 가사를 개사하여 함께 불렀다. 더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위해 신체활동과 음악의 강약, 템포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크다’ 가사가 나올 때에는 손을 크게 벌리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작다’ 가사에는 손을 작게 모으고 목소리를 작게 냈다. ‘빠르다’ 가사 부분에는 노래를 빠르게 부르며 손으로 바닥을 빠르게 치고 ‘느리다’ 가사 부분에는 노래를 점점 느리게 부르며 손으로 바닥을 느리게 두드렸다.

3회기에는 상위개념을 발화를 위해 <동물농장>과 <00이는 어떤 과일 좋아해> 노래를 불렀다. 여러 가지 동물과 과일 이름을 이야기 하고 대상아동들의 좋아하는 동물과 과일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렀다.

4회기 은유적으로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 과 <사과같은 내 얼굴> 노래를 불렀다.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사과’를 ‘오이’, ‘호박’ 으로 바꿔서 2, 3절까지 부르며 비유의 대상에 여러 가지 물체를 대입시켰다.

5회기에는 각 계절의 특징과 이름 말하는 것과 청각적 기억력 향상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계절 노래와 <북을 쳐요> 노래를 불렀다. 대상아동들의 흥미 향상을 위해서 4계절의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해당 그림의 계절에 맞는

노래를 누가 먼저 부르는지 퀴즈 형식으로 진행 했다. 아동이 잘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 노래 앞의 한 단어만 말해주는 등의 작은 힌트를 주었다. <복을 쳐요> 노래에서는 연구자가 대상아동들에게 복을 연주할 횟수를 제안하기도 하고 대상아동들 서로가 서로에게도 제안하였다. 숫자가 높아져 헛갈리면 연구자가 기타로 함께 함께 숫자를 셸다.

6회기에는 숫자 세기와 각 사물에 적합한 단위 말하는 것을 목적으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노래를 불렀다. ‘참새’를 여러 다른 동물로 바꿔서 ‘참새’ 뿐 아니라 동물은 다 ‘마리’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었다. 캔디류 간식을 놓고 한 개, 두 개, 세 개 등 먹었다는 가사 내용으로 친숙한 상황을 통해 숫자를 발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7회기에는 목표자음 발화를 목적으로 랩을 했다. /ㄹ, ㄱ, ㄷ, ㅈ, ㅊ, ㅌ/ 5개 발음을 목표로 했고 사용 단어는 /ㄹ/에 레몬, 리어카, 리모콘, 리본, 리듬악기, /ㄱ/에 사자, 사과, 수영, 수건, /ㄷ/에 줄넘기, 자동차, 자전거, 종이, /ㅈ/에 치타, 책상, 참새, 치즈, 참외, /ㅊ/에 탬버린, 타잔, 토마토, 타조, 타요 의 총 23단어이다. 윤미선(1998)이 개발한 낱말자음검사에서 대상아동들이 오류를 보였던 자음으로 대상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했다.

8회기에는 이수진(2008)이 작사, 작곡한 <머리 만지기 전에>를 이용해 전과 후, 방향을 발화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신체활동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9회기에는 이수진(2008)이 작사, 작곡한 <00옆에 00!> 노래를 개사하여 오른쪽, 왼쪽을 발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동물 인형을 활용하여 노래 안에서 인형의 왼쪽 오른쪽에 어떤 동물인형이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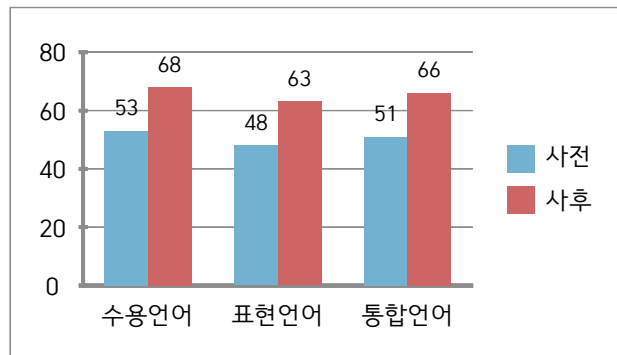
10회기에는 전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마무리로 그동안 가장 좋았던 활동을 복습하고 전반적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연구문제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에 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 2명에게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나타난 결과는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양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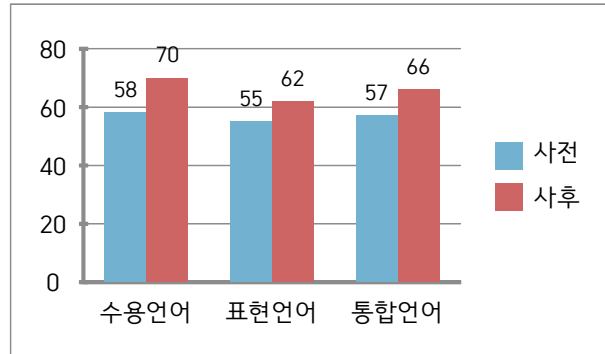
1) 대상아동A의 언어 향상 결과



<그림 1> 대상아동A의 언어발달 검사 사전·사후 결과

노래중심 음악치료 중재 전 대상아동A의 사전 검사 결과는 수용언어 53개월, 표현언어 48개월, 통합언어가 51개월이었다. 음악치료 중재 후 수용언어가 68개월로 15개월 향상, 표현언어가 63개월로 15개월 향상, 통합언어가 66개월로 15개월의 향상을 보였다.

2) 대상아동B의 언어 향상 결과



<그림 2> 대상아동B의 언어발달 검사 사전·사후 결과

노래중심 음악치료 중재 전 대상아동B의 사전 검사 결과는 수용언어 58개월, 표현언어 55개월, 통합언어가 57개월이었다. 음악치료 중재 후 수용언어가 70개월로 12개월 향상, 표현언어가 62개월로 7개월 향상, 통합언어가 66개월로 9개월의 향상을 보였다.

2. 질적분석

다음은 회기별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에서 각 대상아동의 언어적 표현과 행동 변화 등을 질적분석하여 서술한 것이다.

1) 대상아동A

대상아동A는 사전검사 결과 수용언어 58개월, 표현언어 55개월, 통합언어가 57개월이었다. 검사 당시 A는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서 순차적인 발달단계

를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A는 46-48개월 수준의 수용언어인 수 개념에 대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A에게 블록 7개를 달라고 했을 때 바로 7개를 세서 주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블록을 들었다 놔다 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하지만 A는 67-72개월의 수준인 관형구의 이해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표현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46-48개월 수준인 ‘입혀줘, 먹여줘’ 등의 사동사의 사용이나 ‘더’를 사용하는 비교급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61-66개월 수준인 문제해결 질문에서는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A는 특히 수 세기와 색깔, 낱말 회상 등 기억해서 대답해야 하는 의미론 부분에서 낮은 발달을 보였다. 음악치료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A는 활동에 집중해서 열심히 참여했다.

프로그램 1회기에 A는 좋아하는 노래로 <나비아>를 불렀는데 “봄바람의 꽃잎도” 라는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바라메 꼬니꾸” 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불렀다. 가사를 풀어서 이야기 해준 후에 A가 이해를 하고 나서는 원래 가사에 맞게 노래를 불렀다.

2회기에는 /ㄷ/계열 소리의 올바른 모방을 위해 <멋쟁이 토마토> 노래와 <탤버린을 연주해> 노래를 불렀다. A는 ‘토마토’ 발음에서는 오류를 보이지 않았지만 ‘탤버린’ 발음에서는 노래 부르기 전 악기를 소개 할 때 ‘행버링’ 라고 발음을 했다. 연구자가 오류가 나는 음소에 언어적 단서를 주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전에 바르게 음소를 발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니 후에 노래를 부를 때에는 /ㅎ/ 소리가 /ㄷ/ 소리로 바르게 교정되었다.

3회기에 <동물농장> 노래를 함께 불렀다. 노래 제목이 <동물농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노래를 함께 부른 후에 A에게 “노래에 나오는 오리, 염소, 양 닭을 다 뭐라고 하지?” 라고 물어보니 “동물!”이라고 대답했다. A 옆에 호랑이 인형을 놓고 가사를 바꿔서 “A 옆에는 호랑이” 라고 하자 A가 “어흥!”하

고 호랑이 소리를 냈다. 여러 동물을 바꿔서 노래를 불러본 후에 누가 더 빨리 많은 동물 이름을 이야기하나 퀴즈를 냈다. A는 동물 이름을 이야기 하는 중간 중간 앞에 이야기 했던 동물을 다시 넣기도 했지만 중복을 제외하고 총 1분 안에 10개의 동물 이름을 이야기 했다.

4회기 은유적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달> 노래를 불렀는데 A는 “쟁반같이 둥근 달” 가사를 “장발다치 구둔달” 이라고 불렀다.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A를 위해 연구자가 동화를 들려주듯이 가사 전체를 노래 대신 말로 풀어 단어를 설명해주고 문장을 이야기 해주었다. 그 후에 A와 함께 노래를 부르니 A는 문장을 올바르게 모방하고 그 문장 위에 멜로디를 얹어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른 후에 탬버린을 보여주고 탬버린의 윗 부분을 만지며 “여기가 어떻게 생겼어?”라고 물어보니 A는 “달 같이 둥그렇게 생겼어요” 라고 비유적 표현을 응용하여 대답했다.

5회기에는 계절인식과 청각적 기억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A가 B보다 언어발달 수준이 낮았지만 계절부분에서는 A가 더 뛰어나게 계절과 노래를 연결시켰다. 봄 그림카드를 보여주니 <나비야>를 먼저 생각해서 노래를 부르고 뿐만 아니라 ‘개나리 노란 꽃그늘아래’까지 기억해냈다. 두 번째 곡은 “아 하나 더 있는데, 뭐지?” 라며 바로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개나리’라는 단서를 주자 앞부분의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청각적 기억력을 위한 <북을 쳐요> 노래에서는 넷 까지만 지시된 숫자대로 연주하고 다섯 이상의 숫자로 올라가면 처음에 연구자가 어떤 숫자를 불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6회기에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처음 부를 때 A가 ‘참새’를 ‘탐새’ 로 불렀지만 여러 번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교정되었다. 회기 초기에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마이쥬 3개를 먹었네” 하며 마이쥬 3개를 인형 앞에 두었다가 점점 숫자를 늘려서 7개까지 세서 인형 앞

에 두었다.

7회기에는 목표자음 발화연습을 했다. A는 /ㅈ/에서 ‘줄넘기’를 ‘들넘기’로 발음했다. B에 비해 다른 발음의 오류는 없었다. 주로 A의 발음을 듣고 B가 따라서 발음을 교정해나갔다. ‘줄넘기’도 연구자가 시범을 보여주자 바로 오류를 수정했다. 연구자의 북 연주소리에 몸은 흔들흔들 박자를 맞췄지만 랩은 박자에 맞춰 들어가지 못하다가 2-3 마디가 지나간 이후에야 들어왔다.

8, 9회기에는 전/후, 방향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A는 전/후, 왼/오른쪽을 이해하는 듯 하다가도 한번 다시 물어보면 자신이 틀렸는 줄 알고 방향을 바꿔서 이야기 했다. 노래를 배우면서 신체활동을 병행해 연구자가 모델링을 보여주고 여러 번 반복 하니 노래 안에 있는 가사는 틀리지 않고 전/후 순서에 맞는 신체 활동을 했지만 ‘코를 만져요’ 대신에 ‘손뼉을 쳐요’ 등으로 가사를 바꿔서 부르면 다시 헛갈려했다.

10회기에는 A는 자신이 제일 좋았던 활동은 악기연주라고 이야기 하며 악기연주를 하자고 했다. 9회기 때 했던 왼/오른쪽을 복습했는데 자신이 없는 지 노래에 방향을 넣기보다는 “00이 옆에 00” 라고 ‘옆’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2) 대상아동 B

B의 사전검사 결과는 수용언어 53개월, 표현언어 48개월, 통합언어가 51개월이었다. 검사 당시 B도 A와 마찬가지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서 순차적인 발달단계를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50-60개월 수준의 수용언어인 계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 연구자가 눈이 오는 계절이 언제인지 질문을 하면 B는 내일이라고 대답했고 연구자가 단풍이 드는 계절이 언제인지 질문을 하면 B는 나중에 단풍이 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67-72개월의 수준

인 사물을 설명하는 설명문에 대한 이해는 뛰어났다. 표현언어도 마찬가지로 46-48개월 수준인 ‘입혀줘, 먹여줘’ 등의 사동사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61-66개월 수준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에서는 질문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대답했다. B는 연구자가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묻자 경찰아저씨를 찾아가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말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런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능력은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부적으로는 /ㅅ/, /ㅈ/ 조사 모방에 어려움을 보였고 문장을 모방할 때 조사나 문장 어미까지 완전히 모방하지 못했다. 또한 셈의 단위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동물을 어떻게 세는지 물어보면 “하나, 둘, 셋” 이라고 대답했다. 위치를 물어볼 때에는 옆이나 위 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며 “여기요” 라고 대답했다. 여러 가지 과일과 동물을 보여주었을 때에는 하나하나 이름은 이야기 했지만 상위개념으로 과일 또는 동물이라고 이야기 하지 못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B는 적극적이고 큰 목소리로 참여했지만 활동이 지속되어 흥미가 떨어지면 다소 산만한 모습도 보였다.

1회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B는 큰 목소리로 시작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외웠다. 위밍업 활동으로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를 할 때에는 자신의 대답할 차례가 되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거예요 오리는 껍 껍 오리는 껍 껍” 하며 노래를 불렀다. A가 대답을 할 때는 A가 연구자의 관심을 더 받을까봐 더 큰 목소리로 대답하기도 하고 A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자신이 대답하기도 했다.

2회기에 /ㄷ/계열 소리의 올바른 모방을 위해 노래를 불렀을 때 대상아동 B는 ‘토마토’ 발음에서는 오류를 보이지 않았지만 노래 부르기 전 악기를 소개 할 때 ‘탤버린’을 ‘햄버리’ 라고 발음을 했다.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

르면서 연구자의 도움 없이 소리를 듣고 ‘탤버리’로 교정이 되었지만 ‘린’으로 마지막 음소가 교정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언어적 개입이 필요했다. 혀를 윗니 뒤로 붙여야 한다고 이야기 해주고 노래를 부르니 그 후에야 ‘탤버린’으로 바르게 발음을 했다.

3회기에 B는 연구자가 가지고 온 과일모형을 보면서 시작하기 전에 “이건 감이고 이건 토마토고 이건 사과고...” 하며 과일 이름을 이야기 했다. “그래 우리 과일노래 불러보자” 라고 제안하고 “00이는 어떤 과일 좋아해” 라고 노래를 시작하니 “오렌지, 오렌지 좋아해” 라고 대답했다. 노래를 여러 번 부른 후에 “사과, 감, 토마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지?” 라고 물어보자 “과일!” 이라고 대답했다.

4회기를 시작하며 은유적 표현을 배우기 위해 “너희 이 노래 아니?”하며 <사과 같은 내 얼굴> 노래를 선창했는데 B가 이 노래를 잘 안다며 3절까지 불렀다. 노래를 부른 후에 “사과 같은 얼굴은 예쁜 얼굴이야, 못생긴 얼굴이야?” 라고 물어보니 “예쁜 얼굴!” 이라고 대답했다.

5회기에는 계절그림카드를 가지고 가서 겨울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그림에서 산타할아버지를 발견하자 B가 <징글벨> 노래를 불렀다. 노래 부른 후에 “산타할아버지가 언제 오시지?” 라고 물어보니 B는 “코 잘 때! ...아니 겨울 때!” 라고 대답했다. 가을에서는 A가 잘 아는 노래로 A가 대답하자 질투하면서 자신이 잘 아는 여름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여름 여름 여름 즐거운 여름” 노래를 먼저 크게 불렀다. 5회기 때 갑자기 B가 자기는 중국말 할 줄 안다면서 “마마 빠빠 제제 끄끄 러러” 하며 자랑을 했다. <북을 쳐요> 노래를 부르며 숫자에 맞게 북을 연주할 때에는 자신이 A보다 숫자를 잘 센다는 것을 알고는 계속 A를 도와주려고 했다.

6회기에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노래를 손유희와 함께 불렀다. B는 처음에 ‘삼새’ 라고 발음하다가 노래가 반복되니 자연스럽게 ‘참새’로 고

쳐 발음했다. 참새 후에 다른 동물 이름을 넣을 때 B는 악어와 늑대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른 후에 “참새는 어떻게 세지?” 라고 물어보니 고민하다가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니 “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라고 대답했다.

7회기에 B는 목표자음 발음하기 위한 랩 활동에서 ‘자동차’를 ‘다동차’, ‘책상’을 ‘새쌍’, ‘리모콘’을 ‘니누콘’ 으로 발음했다. ‘자동차’는 처음에 “즈, 즈, 다동차”라고 발음하다가 몇 번 반복한 후부터는 ‘자동차’와 ‘다동차’를 섞어서 발음하다 연구자가 그 부분을 짚어주자 그 후로는 오류 없이 ‘자동차’라고 발음했다. ‘책상’은 처음 발화한 이후에 A와 번갈아서 랩을 하자 자연스럽게 /ㅈ/발음으로 교정되었다. 하지만 ‘리모콘’은 A의 발음을 듣고 연구자가 언어적 단서를 주어도 오류는 수정되지 않았다.

8, 9회기에는 전/후, 왼쪽과 오른쪽을 상황에 맞게 이야기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B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후’에 대한 개념은 잘 이해했지만 언어의 순서와 반대로 진행되는 ‘전’의 개념은 어려워했다. 왼/오른쪽도 노래를 부르며 퀴즈형식으로 들어가면 연구자의 표정을 보며 답을 맞추려고 했다.

10회기에는 B는 자신이 좋아했던 노래들을 다시 부르자고 제안했고 가장 재밌었던 활동은 퀴즈맞추기라고 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음악을 활용한 중재가 언어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중재활동으로 개입되었을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안산시 A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생활연령이 62개월, 67개월인 아동 두 명으로 구성되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 변화의 양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과 사후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기별 아동의 발화와 행동을 관찰하여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사례별로 기술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상아동들에게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전과 후에 실시한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에서 대상아동A의 수용언어는 사전검사 시 53개월에서 사후검사 시 68개월로 15개월, 대상아동B는 사전검사 시 58개월에서 사후검사 시 70개월로 12개월의 향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를 통하여 대상아동들은 ‘나/너, 네/니’의 소유대명사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계절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간단한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상아동들에게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전과 후에 실시한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에서 대상아동A의 표현언어는 사전검사 시 48개월에서 사후검사 시 63개월로 15개월,

대상아동B는 사전검사 시 55개월에서 사후검사 시 62개월로 7개월의 향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를 통하여 대상아동들은 /ㅅ, ㅈ/ 계열의 소리를 바르게 모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동물, 물건 등을 셈하는 단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장의 조사와 어미 등까지 정확하게 모방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음악활동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선행연구들(강수균, 2001; 서운정, 2014; 이상연, 장혜원, 2012; 최애나, 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안에서 아동이 노래를 부르며 구강기관 근육이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문장과 여러 언어적 개념을 습득하여 결과적으로 언어발달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언어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기 시기인 만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다른 또래 아동과 마찬가지로 인지면이나 신체적으로는 언어를 발화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들의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온 부정확한 발음과 의미상의 불분명함 때문에 언어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 조기에 치료적 중재가 개입된다면 언어적 문제점들이 고착되기 전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0회기로 짧은 기간의 음악치료 중재가 들어갔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발달은 높은 수준으로의 향상을 보였다. 또한 아동이 익히 알고 있는 동요와 쉬운 구성의 노래 사용은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단시간에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론은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에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치료적 중재 방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 강선미(2004).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래활동 사례 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1), 33-46.
- 강수균, 이재욱, 이효신, 전현선(2011). **자폐아 언어치료**. 경산: 대구대학교출판부.
- 고숙희, 김화수(2006). 수중언어재활치료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아동의 구어기 초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5(2), 59-73.
- 국가법령정보센터(2014). **다문화가족지원법**. 2014년 10월 13일. <http://www.law.go.kr> 로부터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2014). **국적법**. 2014년 10월 13일. <http://www.law.go.kr> 로부터 검색.
-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 2014년 10월 13일. www.humanrights.go.kr 로부터 검색.
- 권미지, 석동일(2010).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 간 음운처리에 관한 메타 언어능력의 비교 분석. **언어치료연구**, 19(1), 1-23.
- 김경미(2009). **음악적 요소 중심의 탐색적 음악교육활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단아, 최성규(2012). 장애이해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의 언어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3(1), 1-20.
- 김성수(2005). 낱말간 음운적 유사성이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빠른 연결(fast-mapping) 수행 전략에 미치는 영향. **언어청각장애연구**, 10(1), 25-42.
- 김영란, 김영태(2011). 취학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73-88.

- 김영란(2011).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취학전 아동의 언어특성 및 CAI를 활용한 부모훈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태, 성태제, 이윤정(2002).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서울 : 장애종합복지관.
- 김은선(2010).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은아(2008). 동요 활용 읽기 지도가 정신지체아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일미(2004). 음악극과 노래부르기가 유아의 음악능력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비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숙(2013). 클래식음악을 활용한 유아동요 노랫말 분석 및 음악활동 프로그램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네이버 지식백과(2014). 다문화가정. 2014년 1월 9일. <http://terms.naver.com>로부터 검색.
- 류현주, 김향희, 김화수, 신지철(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 변동 특성. *음성과학*, 15(3), 133-144.
- 문경아(2011). 글자 없는 책 읽기의 언어중재 효과: 언어발달지체를 지닌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및 이야기 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소현, 김영태(2009). 장애유아 통합교사를 대상으로 한 언어촉진기법 교육의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14(3), 313-325.
- 박소현, 정명심(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질적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7(1), 47-65.
- 박신영(2003). 이야기회상과제를 통한 영어-한국어 이중언어사용 아동의 조사와 어말어미 사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지윤(2007).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언어발달 특징**.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해진(2008). **음악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표현과 자기표현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현옥(2000). **음악치료의 구조와 치료 실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소영, 김미배(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연구**, 15(2), 146-156.
- 배정화, 최성규(2004). 개사를 통한 노래부르기가 정인지체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1), 279-296.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발표회 자료집**.
- 서윤정(2014).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동요 프로그램이 영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선남이(201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설동훈, 윤홍식(2005, 3).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서울 : 학지사.
- 성기철(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5(2), 1-26.
- 송옥경(2003). **윌리엄스 증후군 아동의 언어 및 운동 발달에 미치는 음악 치료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숙(2013). **자기표현활동이 유아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안전행정부(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2014년 10월 13일.

www.mospa.go.kr 로부터 검색.

양성오, 황보명(2009).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비교연구, **언어치료연구**, 18(1), 37-56.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 전라북도 임실군 (및 순창군·남원시) 일원 사례 보고서**. 서울:국립국어원.

윤미선(1998). **정상 및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명료도 검사 방법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윤형숙(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이경미, 정규진, 최애나(2011).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3), 39-61.

이미진(2013). **호흡훈련 중심의 음악치료 중재가 뇌성마비 아동의 발성 및 조음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상연, 강수균(2001). 노래부르기를 통한 언어지도가 언어발달지체아의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10(1), 217-232.

이석원(1994). **음악심리학**. 서울 : 심설당.

이수연(2006). 3-6세 유아의 영역별 발달 촉진을 위한 단계별 음악치료교육 활동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3(1), 29-62.

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 K-BNT-C를 중심으로 :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이수진(2008). **음악치료 수용언어 사정 자료개발 : PRES의 수용언어발달 척도를 기초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우남, 김수진(2006).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정인지체 아동의 수용 및 표현

- 언어 발달에 미치는 효과. **진리논단**, -(12), 491-512.
- 이유미(2011). 의사소통과 화용론 : 화용론과 의사소통론의 연구 범주를 통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 34(-), 25-46.
- 이은정(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척도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주(2001). 다문화 가정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과 권리**, 15(4), 521-539.
- 이지영(2006). 뇌 연구방법론을 통해 살펴본 음악 처리과정 연구 : 음악과 언어, 음악과 정서를 중심으로. **낭만음악**, 18(3), 69-146.
- 이화병(1994). 음악 의미론의 이해. **음악과 민족**, -(8), 23-45.
- 임미정(2011).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 비교**.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재활보건과학대학원.
- 장명옥(2003). **노래부르기를 통한 언어지도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의 언어 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미영(2009). 다문화가정아동을 위한 언어치료 학습교재 개발 방안. **국어문학**, 46(-), 209-234.
- 장유림(201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연결어미 특성 비교 :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재활보건과학대학원.
- 장일식(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에 따른 비행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 장혜원(2012). 노래활동이 통합보육기관 발달지체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2(3), 185-206.
- 전영희(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관련변인**.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전현선, 한경임, 노선옥(2004). **뇌성마비아 언어 치료 교육**. 경북 : 대구대학교출판부.
- 정경희, 박미진(2014). 언어행동 분석적 접근 기반 중재가 자폐성장애아동의 가정환경에서 음성발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5(1), 61-80.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조은정, 박선희(2013). 창의적 미술활동 언어중재가 언어장애아동의 언어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22(1), 131-147.
- 진순주, 김화수, 신명선(2011). 상호작용놀이를 통한 언어중재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20(4), 143-161.
- 차은진(2013). **동화를 중심으로 한 노래극 활동이 유아의 음악능력과 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미영(2010).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음악과 언어 영역과의 통합적 접근의 탐색. **음악교육공학**, 10(-), 41-56.
- 최연(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미디어중독 현상과 미디어교육 방안 연구 : 다문화가정 부모와 다문화교육 전문가와의 FGI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최윤진(2010). **음악치료에서의 가창활동이 아동의 수용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최은정, 윤은미, 이소희, 이은경(2008).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능력 비교.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3), 1-16.
- 최애나(2012). 노래 중심 음악 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4), 1-19.

- 통계청(2013). 2012년 다문화인구동태 보도자료. 2014년 1월 8일.
<http://www.kostat.go.kr> 로부터 검색.
- 한경임(2000). 뇌성마비아 언어 훈련의 선택적 치료 교육 활동 방안.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35(1), 417-444.
- 한나영(2011).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만4, 5세 유아의 수용·표현 언어발달, 어휘력, 단어읽기 비교 : G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성은(2006). 사회적 상황 중심의 노래활동을 통한 자폐아동의 언어표현 증진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유미, 김혜선, 권희경, 양연숙, 박수진(2006). 영유아 언어교육의 이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 교육의 문제와 시사점.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대학원.
- 홍정미(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범주(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 황성숙(2004). 유아동요의 발달적 적합성 분석연구. **아동교육**, 10(2), 173-184.
- 황상심, 정옥란(2008). 경상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3(2), 174-192.
- D'Agrosa, E.(2008). Making music, Reading Readers. *General Music Today*, 21(2), 6-10.
- Kultti A.(2013). Singing as language learning activity in multilingual toddler

groups in preschool.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12), 1955-1969.

Patel, A. D.(2008). *Music, Language and the Brai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Effects of Song-Focused Music Therapy on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hoi, Jin-young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program based on singing on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wo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 daycare center located in the city of Ansan, Gyeonggi Province. There were 6-month or wider disparities between their chronological ages and language development ages on the test of PRES. The music therapy program was provided twice a week, from September 22 to November 7, 2014, in 10 sessions at 40 minutes per session.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program, the PRES was utilized, and the children's pretest and posttest scores were compared. Their utterances and behaviors were observed in each of the sessions to analyze and describe what changes they underw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program served to improve receptive language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en the test of PRES was conducted to look for any possible changes in that regard, both of the two children showed improvement in receptive languag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bservation data for each session, they made progress in that aspect as well. Second,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program served to boost the expressive language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en the test of PRES was conducted to look for any possible changes in that aspect, both of them showed improvement in expressive languag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bservation data for each session, the two children made strides in expressive language as well.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intervention could be one of effective ways to expedite the verbal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부 록

<부 록 1> 사용 노래 가사

1. 시작노래 (조경애 사, 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재미있는 악기연주 아름다운 우리노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시간

2. 마치는 노래(홍유라 사, 곡)

안녕 안녕 잘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00이도 00이도 선생님도 이제는 모두 안녕 이제는 모두 안녕
*00에 아동 이름을 넣어 부른다.

3. 탬버린을 연주해 (Michele Schnur Ritholz 사, 곡)

탬버린을 연주해 탬버린을 연주해
탬버린 탬버린 탬버린을 연주해

4. 멧쟁이 토마토 (김영광 사, 곡)

울퉁불퉁 멧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멧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주욱
나는야 춤을 출 거야 헤이 멧쟁이 토마토 토마토

5. 00 옆에 00! (이수진 사, 곡)

아빠 옆에 엄마 엄마 옆에 철이 철이 옆에 영미 옆사람이죠
*개사하여 아동과 반대개념, 왼/오른쪽 노래로도 활용하였다.

낮은 밝고 밤은 (깜깜해) 아빠는 크고 아기는 (작아)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려요) 정답입니다
*다른 반대 개념을 넣어 부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크고 00이는 (작아) 등.)

고양이 왼쪽에 (곰돌이) 곰돌이 오른쪽에 (고양이)
고양이 오른쪽에 (사자) 정답입니다
*동물과 왼/오른쪽은 그때그때 다르게 지시했다.

6. 동물농장 (홍광식 사, 곡)

닭장속에는 암탉이 (꼬꼬댁) 문간 옆에는 거위가 (꽹꽹)
배나무 밑엔 염소가 (음매) 외양간에는 송아지 (음매)
닭장속에는 암탉들이 문간 옆에는 거위들이
배나무 밑엔 염소들이 외양간에는 송아지
오 히 야하 오 오오 오오오 히 야하 오 오오 오
*개사하여 동물 이름 자리에 다른 동물 이름을 넣어 사용하였다.

7. 00이는 무슨 과일 좋아해 (외국 곡, 작사미상)

00이는 무슨 과일 좋아해 00(과일이름) 00(과일 이름)

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 랄라라

8. 달 (윤석중 , 권길상 사, 곡)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9. 사과 같은 내 얼굴 (김방옥 사, 외국 곡)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10. 머리만지기 전에 (이수진 사, 곡)

머리 만지기 전에 코를 만져요 책상을 두드린 후에 손뼉을 쳐요

*가사를 바꿔 다른 활동으로 전/후 개념을 연습했다.

11. 북을 쳐요 (작사 미상)

북을 쳐요 북을 쳐요 다같이 북을 연주해봐요

북을 쳐요 북을 쳐요 다같이 북을 연주해봐요

*작게 쳐요/ 세게 쳐요, 3번(숫자) 쳐요 등으로 개사하여 사용했다.

12.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작사 미상)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00(이) 머리 위에 앉았네
딱딱하다 딱딱하다 돌덩이 같다 짹짹 짹짹 짹짹
참새 두 마리가 날아와서 00(이) 콧구멍에 앉았네
깜깜하다 깜깜하다 굴속 같다 짹짹 짹짹 짹짹
참새 세 마리가 날아와서 00(이) 찞찌 위에 앉았네
말랑하다 말랑하다 찞찌 같다 짹짹 짹짹 짹짹
참새 네 마리가 날아와서 00(이) 배 위에 앉았네
푹신하다 푹신하다 침대 같다 짹짹 짹짹 짹짹
참새 다섯 마리 날아와서 00(이) 엉덩이에 앉았네
냄새난다 냄새난다 방귀 냄새 짹짹 짹짹 짹짹

*참새 대신 다른 동물 이름을 넣고 사탕 한 개(숫자)를 먹었네 등으로 개사해서 사용하였다.

13. 조사발음 랩

/ㄹ/ ㄹ ㄹ 레몬 ㄹ ㄹ 리어카 ㄹ ㄹ 리모콘 ㄹ ㄹ 리본 ㄹ ㄹ 리듬악기
/ㅅ/ ㅅ ㅅ 사자 ㅅ ㅅ 사과 ㅅ ㅅ 수영 ㅅ ㅅ 수건
/ㅈ/ ㅈ ㅈ 줄넘기 ㅈ ㅈ 자동차 ㅈ ㅈ 자전거 ㅈ ㅈ 종이
/ㅊ/ ㅊ ㅊ 치타 ㅊ ㅊ 책상 ㅊ ㅊ 참새 ㅊ ㅊ 치즈 ㅊ ㅊ 참외
/ㅌ/ ㅌ ㅌ 탬버린 ㅌ ㅌ 타잔 ㅌ ㅌ 토마토 ㅌ ㅌ 타조 ㅌ ㅌ 타요

14. 꼬까신 (최계락 사, 손대업 곡)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꼬까신 하나
아기는 살짝 신 벗어 놓고 맨발로 한들한들 나들이 갔나
가지런히 놓여있는 꼬까신 하나

15. 나비야 (작사 미상, 독일 동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호랑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의 꽃잎도 방긋방긋 웃으며 참새도 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16. 여름여름여름 (김성균 사, 곡)

여름 여름 여름 즐거운 여름 시원한 냇가에서
고기잡이 합시다 랄랄랄라
미꾸라지 뱀장어 송사리떼 올챙이
아차하면 달아납니다 아차하면 달아납니다

17. 가을길(김규환 사, 곡)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높은 하늘 가을 길은 고운길
트랄랄라라 트랄랄라라 트랄랄라라 라라 노래부르며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길 가을 길은 비단길

18. 징글벨 (피어폰드 사, 곡)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19. 울면 안돼 (프레그쿠츠 사, 곡)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주신대요
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 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